

최태원 “지난이행 마음가짐으로 솔선수범… 함께 나아가자”

〈SK그룹 회장〉

〈知難而行〉

산업계 신년사

구광모 LG그룹 회장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 드릴 것”

신동빈 롯데 회장

“체질개선 통해 재도약토대 다져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재계가 올해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마주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1일 전체 구성원에게 이메일로 보낸 신년사에서 “지금 우리에게서 어려움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지난이행’(知難而行)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시도와 혁신은 언제나 어렵다. 저부터 솔선수범하며 용기를 내어 달려 보겠다.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신년사를 전한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우리가 다져온 고객을 향한 마음과 혁신의 기반 위에 LG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세우자”고 제시했다.

구 회장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전에 없던 가치를 만든 많은 순간들이 쌓여 지금의 LG가 되었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분명하다”며 “도전과 변화의 DNA로 미래 고객에게 꼭 필요하다

고,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 확대, 내수 시장 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룹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회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회장은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그는 “체질 개선을 통해 재도약의 토대를 다져야 한다”며 “재무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개인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업무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항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선도적 지위 회복을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도 주문했다.

이날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안전과 기술 우위, 원가 구조 혁신을 통해 글로벌 위기를 돌파할 것을 주문했다. 장 회장은 “지금 우리는 철강을 비롯한 주력 사업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냉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안으로 “핵심 R&D 영역을 선정해 역량을 결집, 사업별 난제를 극복하고 미래 시장 변화를 주도할 고유의 설루션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끊임 없는 혁신”을 강조했다. 실행과 성과로 그룹의 경쟁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진정한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지 않는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침묵하는 태도가 가장 큰 위기의 경고음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시기일수록 성공에 대한

혁신을 갖고 신속한 실행과 끊임 없는 혁신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본업 경쟁력’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2025년은 우리의 본업에 대해 집요하게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고물가와 불경기 등으로 시장 상황이 나쁘다. 이럴 때도 기업은 도전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정 회장은 “본업이란 오늘의 신세계그룹을 있게 한 성장 엔진”이라며 “엔진의 핵심 연료는 1등 고객”이라고 강조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고객 중심 혁신’을 강조했다. 현 회장은 “당장 일감을 주는 기업 고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의 요구를 읽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며 그룹의 주력인 B2B

(기업 간 사업)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에 무게를 실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도 “성장은 실천에서 시작되고 다양한 협력으로 확장되며 서로의 공감으로 완성되듯이, 우리가 서로를 믿고 도우면서 함께 변화의 파고에 맞서 힘차게 나아가자”고 밝혔다.

CJ 손경식 회장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격차 경쟁력을 강조했다. 그는 “그룹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성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은 각 사업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글로벌 영도 확장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올 한 해 소통으로 위기를 전회위부의 계기로 신뢰 받는 백년 효성을 만들자고 독려했다. 조 회장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권오갑 HD현대 회장은 위기가 곧 기회임을 피력했다. 권 회장은 “미국과의 조선분야 협력은 우리에게 찾아온 새로운 기회”라며 “우리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대표 K-조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남영·신원선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10억 투자하면 10.8명 고용유발 경제회복 위해 건설투자 확대를”

산업연구원, 건설활동 파급효과 분석 제조업 평균 6.5명 보다 1.7배 많아 전산업비 생산유발효과 10% 높아

침체국면에 빠진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직간접 고용 창출과 연관산업 생산유발 효과가 큰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일 발표한 ‘건설활동이 제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활동은 생산액 10억원당 고용유발인원이 10.8명으로 제조업 평균인 6.5명보다 1.7배 많고, 생산유발효과도 2.017(2020년 기준)로 전산업 평균인 1.875보다 10.5% 높았다.

이는 건설산업의 최종수요 증가가 다른 산업의 최종수요 증가보다 전체 산업의 고용과 생산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산업은 특히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 산업의 생산 증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관산업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2020년 산업연관표를 따르면, 건설산업의 총산출액 281조원에 의한 연관산업의 취업유발 인원은 126만 3433명에 달한다. 특히, 제조업 취업유발 인원은 33만 8600명으로 이는 제조업 전체 취업자의 10.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업종별로, 금속제품과 시멘트·콘크리트·점토제품 산업에 각각 8만 1594명, 6만 900명의 취업을 유발했고, 고무·플라스틱제품(3.5만명), 전기기계(3.4만명), 철강(2.4만명), 일반기계(2.3만명), 목재·목제품(1.5만명), 가구 포함 기타제조업(1.4만명) 순이었다.

202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건설투자의 고용유발효과를 구해보면, 건설투자를 5조원 확대할 경우, 3만 1575명의 건설산업 고용이 창출되고, 연관산업 고용도 2만 2441명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산업 총산출액 281조원에 의한 연관산업 생산유발액은 284조원 수준이다. 특히, 제조업 생산유발액은 157조원으로 제조업 전체 산출액의 8.9%에 달한다.

산업연구원 박훈 연구위원은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건설투자를 확대할 경우 건설 고용 확대는 물론이고 제조업 등 연관산업 경기 활성화와 고용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美증시 관심 상승... ‘트럼프 랠리’ 이어가나

작년 말 기준 美 주식 1120억 弗 보관 2~3분기 조정장... 매수기회 삼아야

지난 한 해는 그 어느 때 보다 미국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뉴욕 증시 ‘3대 지수’인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 지수 ▲다우존스 ▲나스닥의 전고점 경신 기록이 쏟아져 나왔고,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금융투자업계는 2025년 을사년에도 투자자들의 ‘미국 투자 랠리’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 서학개미 쑥 ↑... M7 필두로 달린 뉴욕증시

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1120억 5556만 달러(약 164조 9233억원)로 2023년말 680억 2349만 달러(약 100조 1170억원)보다 440억 3207만 달러(약 64조 8064억원)가량 증가했다.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2024년은 월가에 기록적인 한해였다. 미국 증시를 선택한 서학개미들에게 미국 증시는 높은 수익률을 안겨줬다.

한 해 동안 ▲S&P500 지수 23.3% ▲나스닥 지수 28.6% ▲다우 지수 12.9% 상승률을 기록했다. S&P 500 기업 중 493개 기업이 수익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성장세를 나타냈다. 그 결과 S&P500 지수는 57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한 해에만 77번 사상 최고치를



ChatGPT로 생성한 ‘푸른 뱀의 해를 맞은 뉴욕증시’

같이 치운 1995년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많이 갈아치운 역대 다섯 번째 기록으로 남게 됐다. 다우, 나스닥 지수도 각각 47회, 38회의 전고점 경신의 역사를 썼다.

특히 ‘M7(매그니피센트7)’ 종목의 활약은 돋보였다.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요 빅테크들이 상승 랠리의 선봉에서 뉴욕 증시 오름세를 견인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M7 기업들은 전체 주가 지수 수익률의 53% 이상을 차지했다.

◆ ‘R의 공포’에서 ‘트럼프 랠리’로, 2025년은

뉴욕증시가 2024년 내내 오르기만 한 건 아니었다. 예상보다 고용시장이 빠르게 식어가는 추세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8월 시작과 함께 미국 7월 실업률 4.3%라고 발표했다. 실업률이 상승하자 미 경기침체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인 ‘삼의 법칙(Sahm’s rule)’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

다. 이는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최근 12개월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아지면 경기침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 M7 위주로 큰 하락 폭이 나타났고 이는 신중국 증시에도 큰 타격을 주며 ‘검은 월요일(8월 5일)’로 이어졌다. 하지만 경기침체의 공포를 이겨내고 11월 대선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트럼프 랠리’로 추진력을 얻기 시작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식에서 최소 25개의 행정 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투자자들은 이와 관련한 주가 변동을 주목하고 있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는 내년에도 미국 주식이 탄탄한 이익 성장을 기반으로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강세장이 3년 차로 접어들며 지난 2년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내년 2~3분기에는 조정장이 올 수 있지만 이를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메트로경제신문 임직원 일동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